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홍루몽

HONG
LOU
MENG

조설근 고역자
안의운 김광렬 역

2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홍루몽 2

조설근 고안
안이영 김연희 역

북문출판사
조간대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红楼梦. 2: 朝鲜文 / (清) 曹雪芹, (清) 高鹗著;
安义运, 金光烈译. —哈尔滨: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9. 4

ISBN 978-7-5389-1567-9

I. 红… II. ①曹…②高…③安…④金… III. 章回小说—
中国—清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42.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9) 第 049205 号

本书根据人民文学出版社 2000 年 5 月
第 1 版翻译出版

차 례

- 제 31 회 부채를 찢으며 천금값의 웃음을 짓고
기린을 연줄로 백수쌍성이 감춰지다 /1
- 제 32 회 간담에 서린 진정으로 보옥을 미혹시키고
치욕의 루명에 금천아는 스스로 목숨을 끊다 /20
- 제 33 회 형제간에 호시탐탐 고자질을 일삼고
불초의 죄가 많아 귀공자 매를 맞다 /36
- 제 34 회 다함없는 정으로 누이를 감동시키고
잘못이 많은 오빠를 잘못으로 타이르다 /50
- 제 35 회 백옥천은 직접 련잎국을 맛보고
황금앵은 손수 매화락을 지어주다 /68
- 제 36 회 강운현에서 원앙을 수놓으며 잠꼬대 엿듣고
리향원에서 정분이 서로 다름을 깨닫다 /88
- 제 37 회 추상재에서 우연히 해당시사를 내오고
형무원에서 밤중에 국화시제를 정하다 /106
- 제 38 회 림소상은 국화사회에서 장원으로 뽑히고
설형무는 계의 시로 세인을 풍자하다 /131
- 제 39 회 촌로파는 떠오르는대로 이야기를 늘어놓고
다정스런 귀공자는 끈질기게 파고묻다 /149
- 제 40 회 사태군은 대관원에서 두차례 연회를 베풀고
김원앙은 연석에서 세차례 아패령을 내리다 /165
- 제 41 회 가보옥은 룡취암에서 차맛을 보고
류로파는 술에 취해 이흥원에 드러눕다 /191
- 제 42 회 형무군은 좋은 말로 의혹을 풀어주고
소상자는 우아한 룡조로 향기를 보태다 /209

- 제 43 회 한가하게 돈을 모아 생일을 축하하고
정을 잊지 못해 흠으로 분향을 하다 /227
- 제 44 회 의외의 변고에 희봉은 질투를 부리고
뜻밖의 기쁨에 평아는 몸을 단장하다 /244
- 제 45 회 다정한 정숙에 서로 흥금을 터놓고
비바람 부는 저녁에 비바람을 읊조리다 /262
- 제 46 회 거북한 사람은 거북한 일을 면하지 못하고
원앙녀는 맹세코 원앙이 되길 거절하다 /282
- 제 47 회 어리석은 패왕은 남을 회롱하려다 매를 맞고
차거운 젊은이 죄가 두려워 타향으로 떠나다 /302
- 제 48 회 바람쟁이 사나이 실수하여 바람설 생각을 하고
고상한 아가씨 집념에 빠져 시짓기에 골몰하다 /320
- 제 49 회 유리세계의 백설속에 홍매화는 곱게 피고
어여쁜 아가씨들 날고기를 구워먹다 /338
- 제 50 회 로설암에서 즉경시를 다투어 짓고
난향오에서 설맞이 수수께끼를 만들어내다 /357
- 제 51 회 나어린 설보금은 새로 회고시를 짓고
영터리의원은 함부로 독한 약을 마구 쓰다 /382
- 제 52 회 령리한 평아는 인정에 도적일을 눈감아주고
야무진 청문은 병중에 공작털외투를 기워준다 /401
- 제 53 회 그믐날밤 영국부에서 사당에 제를 지내고
대보름날 영국부에서 밤잔치를 차리다 /422
- 제 54 회 사태군은 진부한 이야기를 까발가놓고
왕희봉은 효성스레 희채반의를 본받다 /443
- 제 55 회 미련한 소실은 부질없이 딸을 모욕하고
간사한 종녀는 나어린 주인을 업수보다 /467
- 제 56 회 영민한 탐춘은 리로웁게 폐단을 없애고
식견있는 보채는 작은 은혜로 전반을 돌보다 /487

- 제 57 회** 슬기로운 자건은 재치있게 보옥을 떠보고
자애로운 설부인은 따뜻하게 대옥을 위안하다 /509
- 제 58 회** 살구나무아래서 가짜봉황이 거짓봉황을 슬퍼하고
사창가에서 진정으로 치정을 헤아려주다 /538
- 제 59 회** 류엽저에서 앵아에게 화내여 춘연을 꾸짖고
강운현에서 장군을 부르러 부절을 띄우다 /556
- 제 60 회** 말리분으로 장미초를 대체하고
매괴죽으로 복령분을 끌어내다 /571

제 31 회

부채를 찢으며 천금값의 웃음을 짓고
기린을 연줄로 백수쌍성이 감춰지다

자기가 토해놓은 피를 보고 자지러질듯이 놀란 습인은 가슴이 얼어드는것 같았다. 그는 전부터 사람들이 들려주던 말이 얼핏 머리에 떠올랐다.

(젊어서 각혈을 하게 되면 오래 살기가 어렵거니와 또 설사 목숨은 부지된다 하더라도 폐인이 되기가 쉬운거야.)

이런 생각이 들자 후날의 부귀영화를 바라고 살자던 희망이 일시에 불꺼진 재로 되고마는것 같았다. 습인의 눈에서는 어느덧 구슬 같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습인의 눈물을 본 보옥은 자기도 마음이 구슬뻐다.

“가슴이 좀 어때?”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요.”

습인은 억지로 웃어보였다.

보옥은 당장 사람을 불러다 황주를 대워오게 하고 산양혈과 려동환(黎洞丸)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자 습인은 보옥의 손목을 붙잡고 한사코 말리었다.

“그만두세요, 도련님! 아직은 도련님만 아시는 정도니까 괜찮지만 지금이 어느때예요? 모두 단잠이 들어있는데 쓸데없이 사람들을 깨웠다가 제가 먼저 원망을 사게 되지 않겠어요? 또 공연히 남들까지 알게 되면 도련님한테도 좋지 않고 저한테도 나빠요. 그러시기보다 래일 하인아이를 시켜서 왕의원한테 가 물어보고 약이나 조금 갖다 먹으면 되잖겠어요? 그러면 아무 소문도 안 날테니 좋지 않아요?”

습인의 말이 옳겠다고 여긴 보옥은 사람을 부르려던 생각을 그만 두고 손수 상우에 놓인 차물을 따라서 습인에게 주며 양치질을 하게 했다. 습인은 지금 보옥이가 펴 마음을 줄이고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의 보살핌을 거절하고싶었으나 그런대야 말을 들을것 같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을 깨워일으키기보다는 차라리 보옥이가 하는대로 가만 놔두는편이 나을듯싶었다. 그리하여 습인은 누운채 보옥의 간호를 받았다.

새벽녘이 되자 보옥은 얼굴을 씻을새도 없이 옷을 걸치고는 하인 아이를 시켜 의원 왕제인을 불러냈다.

보옥이 직접 약방문을 물었더니 의원은 발병원인을 물어서 타박상인것을 알고는 환약이름을 알려주며 먹는 방법과 바르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보옥은 그길로 원내에 돌아와 치료에 착수했다.

이날은 마침 단오명절이었으므로 집집마다 재래의 풍속대로 대문에는 창포와 약쑥을 꽂고 뒤편에는 범을 그린 부적을 붙이였다.

점심때쯤 하여 왕부인은 음식을 장만해놓고 설씨댁 모녀를 청하였다. 모두들 모여앉기는 했으나 보채가 담담한 기색으로 자기와는 말도 하지 않으려는것을 보고 보옥은 어제일때문에 그러거니 생각되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한편 왕부인은 왕부인대로 보옥이가 풀이 죽어있는것을 보고 어제 금천아를 내보냈기때문에 그러는것이 아닌가 해서 더구나 모른체 내버려두었다. 뿐만아니라 대옥은 대옥이대로 보옥이가 시무룩해있자 보채때문에 그러는것이 아닌가싶어 기분이 우울해졌고 희봉은 또 희봉이대로 어제 왕부인을 통해 보옥과 금천아의 일을 알고있는터이라 지금 왕부인이 그 일때문에 기분이 상해있는것이거니 생각되어 그전처럼 감히 웃고 떠들지를 못하게 되니 영춘이또래들도 재미가 있을리 없었다.

그리하여 모처럼 가졌던 명절놀이였지만 사람들은 딱딱하게들 앉아있다가 이내 헤어져갔다.

림대옥은 워낙 천성이 외로운것을 좋아하고 한데 모여있기를 싫어하는 성미였지만 따져보면 그것도 리유는 없는것이 아니였다.

(사람이 만나는 때가 있다면 필연코 헤어질 때가 있기 마련이며

또 만날 때는 반갑지만 헤어질 때는 쓸쓸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쓸쓸하다는것은 곧 슬픔을 따르게 하는것이니 야예 처음부터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을것이다. 레를 들어 꽃이 필적엔 그것이 사랑스럽지만 시들어서 지게 되면 슬픔만 더하게 되니 차라리 처음부터 피지 않는편이 나을것이다.)

그러므로 대옥은 남들이 기뻐하고있을 때면 도리어 슬퍼하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보옥은 그와 정반대였다. 그는 언제나 모여있기를 원했고 헤어져 고독속에 있기를 두려워했다. 이를테면 꽃이 언제나 피여있기를 원했고 조금이라도 시들게 되면 싫어했다. 하지만 연회석상은 언제든 끝나기 마련이요, 꽃은 때가 되면 지기 마련이니 아무리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라.

오늘도 모임이 싱겁게 끝난데 대해 대옥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있었지만 보옥은 이내 심사가 우울해져 자기 방에 돌아와 한숨만 내쉬고있었다. 하필이면 이런 때 청문이가 와서 보옥의 옷을 갈아입혀 주다가 잘못하여 보옥의 부채를 떨어뜨리고 밟아서 살을 부러뜨렸다.

“이런, 멍청이 같으니라구! 이다음 시집을 가서두 이렇게 물덤병 불덤병할테야?”

청문은 이내 섧쪽하니 웃었다.

“도련님은 요새 왜 자꾸 골만 내시는거예요? 걸핏하면 욕설을 퍼붓구요. 전날은 습인에게 발길질을 하시더니 오늘은 또 저한테다 허물을 잡으려드시는군요. 좋아요, 발로 차시든지 손으로 때리시든지 도련님 소원대로 하세요. 하지만 부채살 하나 부러뜨린것이 뭐가 그리 대단해서 그러시는거예요? 전엔 유리항아리가 아니라 마노그릇을 그토록 여러개나 깨였어도 어디 성 한번 내셨던가요? 기껏했자 부채 한자룬데 이러실줄은 정말 몰랐어요. 만일 저희들이 눈에 거슬려서 그러신다면 지금이라도 내쫓고 좋은 사람들을 들여세우도록 하세요. 차라리 갈라지는편이 펍 씨원할테니까요.”

청문의 양칼진 반항에 보옥은 전신이 부르르 떨리도록 울화가 치밀었다.

“네쪽에서 조금해할건 없어! 언제든 갈라질 때가 있을테니까!”

어느결에 습인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방금까지도 아무 일 없더니 어떻게 된거예요? 정말이지 내자 조

금만 옆눈을 팔아도 사달이 난단 말이에요.”

청문은 그 소리에 헛 하고 코웃음을 쳤다.

“언니가 이왕 그렇게 수완이 높으시다면 진작 오실 일이지. 그랬더라면 도련님께서 성내실 까닭도 없지 않겠어요? 까만 옛날부터 도련님은 언니가 시중들어왔지 우리야 언제 시중들어봤나요? 또 언니가 시중을 극성스레 들었기때문에 어제도 도련님이 상으로 발길을 안기신게 아녜요? 정말이지 우리같이 시중들줄 모르는것들로는 언제 무슨 별을 받을지 모를 일인걸요.”

이런 말을 들은 습인은 분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여 몇마디 면박을 주고싶었지만 보옥이가 성이 나서 얼굴이 새파래져있는것을 보고는 이내 꼭 참고 청문이를 밀어냈다.

“청문아, 그러지 말구 이젠 밖에 나가 놀아라. 워낙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나 청문은 또 습인의 말꼬리를 잡고 놓지 않았다. 한것은 습인이 자기와 보옥이를 한테 겨루어 “우리”라고 하자 못내 질투의 불길이 일어났던것이다.

청문은 이번에도 코웃음을 쳤다.

“우리라고요? 우리라면 누구와 누구를 말씀하는건가요? 원, 내가 다 창피스러워죽겠네. 당신네들이 남의 눈을 피해가며 하는짓들을 다른 사람은 속일수 있을지 몰라도 내 눈만은 속여넘길수가 없는거예요. 아니, 어느 촌수로 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거예요? 바른 말로 해서 언닌 아직 아가씨란 이름까지도 얻지 못하고있는 사람이 아녜요? 역시 나와 별로 다를것이 없는 처지에 우리라는게 다 뭐예요?”

이런 욕을 당하는 습인의 얼굴은 붉다못해 피빛으로 변하였다. 생각해보면 자기가 말을 잘못된것도 사실이였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창피를 줄법이 어디 있을가 하고 입술을 깨무는데 보옥이가 나서서 편을 들어주었다.

“너희들이 정 그렇게 놀테면 래일이라도 습인을 한급 높여주지 않나 봐라!”

습인은 얼른 보옥의 손을 잡아당겼다.

“철없는 애하고 무얼 따지려드시는거예요? 전에는 이보다 더한 일도 곧잘 참아주시더니 오늘은 어떻게 된 일이에요?”

청문은 더욱 기가 올라 차갑게 웃었다.

“전 정말 철없는 바보예요. 언니 같이 훌륭한 사람과 상대할 자격이 있거나 하나요?”

“애, 넌 도대체 나하구 싸움을 하고있는거니 아니면 도련님하구 싸움을 하고있는거니? 내가 뭇거든 나 하나만 욕할거지 구태여 도련님까지 한테 걸고들건 없잖아? 그렇지만 도련님때문이라면 세상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렇게까지 떠들거야 없지 않나 말야. 난 량쪽이 다 좋도록 싸움을 말리러 온것뿐이야. 그런걸 넌 나를 잡아먹을것 같이 굴면서 내게도 방치질이요, 도련님한테도 삿대질이니 난 너의 이런 심사를 도무지 알수가 없구나. 난 더 말리고싶지 않으니 어디 네가 하고픈대로 해보렴.”

습인이 돌아나가려 하자 보옥은 청문을 향해 내뱉듯 말했다.

“너도 더 화낼것 없어! 나도 네 맘속을 알만해. 지금이라도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집으로 보내주라고 하면 되잖아?”

보옥의 이런 말에 청문은 자기도 모르게 설움이 북받쳐 눈에 눈물이 그렇그렁해졌다.

“제가 왜 나가요? 제가 싫어서 아무리 갖은 방법을 다해 저를 내보내려 하셔도 그렇게는 안될거예요.”

“난 지금까지 네가 이렇게 구는걸 본 일이 없어. 여기를 떠나고 싶은 생각임이 틀림없잖아?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너를 내보내주면 그뿐이란 말야.”

그러며 보옥이 일어나 나가려 하자 습인이 얼른 막아섰다.

“어텔 가시려는거예요?”

“어머니한테 가지 어텔 가?”

“원 도련님두, 정말 가서 말씀드리시려는거예요? 부끄럽지도 않으신 모양이죠? 설사 저 애가 정말로 나가고싶은 생각이 있다손치더라도 서로 기분을 돌린 뒤에 틈을 봐서 마님께 말씀드려도 늦지 않을 거예요. 무슨 큰 일이나 난듯이 지금 당장 달려가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마님부터 이상하게 생각하실게 아녜요?”

“아니야, 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하실리가 없어. 이 애가 나가고싶어서 대들며 야단이였다는 말을 푹푹히 밝히면 될게 아녀?”

청문은 와락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번엔 애원의 눈길로 보옥을 쳐다봤다.

“제가 언제 나가지 못해 대들었어요? 도련님이 제게다 성을 내시구선 되려 그 책임을 제게다 덮어씌우시면서. 좋아요, 어서 가서 그렇게 말씀드려주세요. 그렇지만 전 머리를 벽에다 들이받아 죽더라도 이 댁 문밖은 절대로 나가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건 또 이상한 일이로군. 나가지 않을 제제라면 왜 이렇게 성가시게 말썽을 일으키고있는거야? 우선 나부터 이런 말썽을 견뎌내기 어려운거니까 차라리 나가주었으면 좋겠어.”

보옥이가 기어이 어머니를 찾아갈 잡도리를 하자 습인은 보옥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안에서 떠드는 소리를 듣고 벽흔, 추문, 사월이들은 밖에서 숨을 죽이고 동정을 살피고있다가 습인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자 일제히 안으로 들어와 습인의 옆에 꿰어앉았다.

이 뜻밖의 행동에 당황해난 보옥은 얼른 습인을 붙들어일으키더니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며 침대가에 걸터앉았다. 그리고는 벽흔이들을 내보내고나서 습인에게 호소했다.

“난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 이 가슴이 막 찢어지는것 같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울화가 풀리지 않은 보옥은 제풀에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습인은 보옥이가 눈물을 흘리자 자기도 울음을 터뜨렸다.

청문은 그때까지 한옆에서 울고있다가 막 말을 하려는데 대옥이가 들어서므로 그대로 일어나 나가버렸다.

“아아니, 오늘 같은 명절날에 울기는 왜 우시며 이러는거예요? 설마 종자떡(粽子)을 가지구 다투신거야 아니겠지요?”

대옥이가 웃으며 말을 하니 보옥과 습인은 피식 웃었다.

“오빠가 안 가르쳐주면 난 이분한테 물어서라도 알아낼걸.”

대옥은 그러며 습인의 어깨를 도닥였다.

“아가씨, 어서 좀 알려줘요. 틀림없이 두분이 다투신거야. 그랬으면 그랬다구 알려줘요. 내가 화해를 붙여줄테니요.”

습인은 대옥일 가볍게 떠밀며 살짝 눈을 흘겨보였다.

“대옥아가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 같은 일개 하녀에

게 아가씨란 당한 소린가요?”

“습인은 자기를 하녀라고 생각하지만 난 지금까지 습인을 아가씨로만 보아온걸 뭐!”

그러자 보옥이가 옆에서 답답하다는듯이 한마디 끼여들었다.

“공연히 아니할 룡담으로 남을 욕먹게 할건 뭐람? 그러지 않아도 남들은 이러니저러니 시비질인데 대옥누이까지 그런 말을 해보지, 어떻게 되나.”

“대옥아가씨, 아가씨 저의 속타는 심정을 잘 모르실거예요. 차라리 전 이대로 숨져버렸으면 시원할것 같아요.”

습인의 죽고싶다는 말에 대옥은 웃으며 나무랐다.

“습인이 죽으면 다른 사람은 어찌할지 몰라도 나만은 울다울다같이 죽게 될걸.”

“네가 죽으면 난 중이 되고말테야.”

습인은 텐접을 먹듯이 보옥일 나무랐다.

“좀 자중하시도록 하세요. 어찌면 그런 말을 입에 담으실가!”

혼자서 깔깔 웃고있던 대옥은 보옥에게 손가락 두개를 펴보였다.

“호호, 벌써 두번이나 중이 되셨군요. 이제부턴 도련님께서 중이 되시겠다고 할적마다 그 회수를 꼭꼭 기억해두어야 할가봐.”

대옥이가 그전날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인것을 알아챈 보옥은 웃음으로 얼버무리는수 밖에 없었다.

이윽고 대옥이가 돌아가자 뒤미처 설반이 사람을 보내여 보옥을 청했다. 보옥은 전날 초청에 가지 못했으므로 이번만은 아니갈수 없게 되었다.

설반은 술상을 꾸밈하게 차려놓고 술을 마시고있었다. 보옥은 사양하기가 어려워 같이 앉아 량껏 술을 들이켰다. 저녁때가 되여 집으로 돌아올 때는 거나히 취해서 걸음이 제대로 걸리지 않았다.

처소로 돌아오니 뜰에는 석재를 깎은 침대가 놓여있고 누군가 그우에서 잠을 자고있었다.

보옥은 그가 습인이려니만 생각하고 침대가에 걸터앉으며 손으로 몸을 건드렸다.

“아픈덴 좀 어때?”

“왜 또 와서 사람을 못살게 구는거예요?”

벌떡 일어나며 앵돌아앉는것을 보니 습인이 아니라 청문이었다.

보옥은 한순간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진정하고 웃으며 청문의 손을 잡아끌었다.

“넌 갈수록 성미가 까딱해지기만 하는구나. 아침의 일만 해도 그렇지 않아? 네가 부채살을 부러뜨렸기때문에 내가 한두마디 한것뿐인데 넌 왜 그렇게 동네방네가 다 알도록 야단을 쳤어? 그것두 나한테만 그랬으면 또 모르겠지만 습인으로 말하면 호의에서 싸움을 말리러 온 사람인데 습인이까지 한테 껴들어서 시비를 걸건 뭐냐 말야. 어디 좀 생각해보라구. 그게 그래 잘된 일인가?”

“아이구 참, 더워서 죽을 지경인데 왜 이렇게 남의 손을 잡고 이러시는거예요? 싫어요! 남이 보면 뭐라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건 이런데 앉아있을 자격도 없구요.”

“그렇게 자격이 없는걸 알고있었으면 여기서 자기는 왜 자는거야?”

그제야 청문은 더 할말이 없던지 캐득캐득 웃었다.

“도련님이 없으실 땐 괜찮지만 도련님이 오신 이상 자격이 없어 지는거지요 뭐. 이젠 좀 물러나주세요. 가서 목욕을 해야겠어요. 습인 언니랑 사월언니랑은 벌써 다 마쳤어요. 제가 가서 그 언니들을 불러다드릴게요.”

“나두 방금 술을 적잖게 마신테이니까 몸을 한번 더 씻어야겠어. 너 아직 씻지 않았거든 어서 가서 물을 담아오라구. 나하구 같이 씻자구나.”

청문은 두손을 내저으며 깔깔 웃었다.

“원 당치도 않을 말쑼은 하지도 마세요. 제가 어떻게 도련님의 상대가 되어드리겠어요? 지금도 기억하고있지만 언젠가 벽훈이가 도련님 목욕시중을 들었을적에 아마 적어도 두세시간은 걸렸던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서 무얼 어떻게 했는지 목욕이 끝난 뒤에 들어가보니 땅바닥에 고인 물이 침대다리를 잠글 지경이구 침대우에 퍼놓은 샷자리까지 폭 젖어있더군요. 우린 며칠을 두고 웃었는지 몰라요. 전 그럴 정도로 시중들어드릴 틈이 없으니까 저하고 같이 씻을 필요도 없어요. 오늘은 좀 선선한편이니 아까 목욕을 이미 하셨으면 목욕은 그만두도록 하세요. 그 대신 제가 대야에다 물을 떠다드릴테니 얼굴이



나 씻고 머리카 감도록 하세요. 조금전에 원앙언니가 과일을 가져왔기로 수정항아리에 담아서 물에 불귀놓았으니 아이들을 시켜 그것이나 갖다 잡으세요.”

“그렇다면 너도 목욕을 하지 말어. 손만 씻고 나하구 같이 과일이나 먹도록 하자.”

그러자 청문이 땀그레 웃어보였다.

“저 같은 덜렁이가 그럴 자격이나 있나요? 부채 하나두 다룰줄을 몰라서 부러뜨리는 주제에 어떻게 과일접시를 들고다닐수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접시까지 깨쳤다면 더욱 큰일나게요?”

“네가 깨고싶으면 깨는거지 뭘그래. 그런 물건은 다 사람들에게 썩여지기 위해 만들어진게 아니겠어? 다만 넌 저러는게 취미, 난 이러는게 취미인것처럼 사람에 따라 취미가 다를뿐이야. 가령 이 부채를 놓고 말하더라도 본시 이것은 부치기 위해 만들어진것이지만 내가 이걸 찢으며 놀고싶다면 찢을수도 있는거야. 물론 화김에 그것을 찢는건 또 처음부터 의미가 다른거고, 쟁반이나 접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본래는 음식을 담기 위한 그릇이지만 내가 그 소리를 듣고싶어 그런다면 일부러 깨여도 무방하단 말야. 그러나 화풀이할 곳이 없어서 그러지는 말란 말야. 이렇게 바로 물건을 아끼는 도리인거야.”

보옥의 말에 청문은 방글방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럼 도련님, 그 부채를 이리 주세요. 난 부채를 찢는게 취미인걸요.”

보옥이가 웃으며 부채를 건네주자 청문은 받아들기가 무섭게 부채를 짹 찢었다. 뒤이어 또 짹찹 찢는 소리가 났다.

보옥은 옆에서 병글거리기만 하였다.

“듣기 좋구먼. 좀 더 찢어보라구.”

이때 사월이가 들어서며 웃는 얼굴로 청문을 나무랐다.

“그런 죄받을 일은 좀 그만두어요.”

보옥은 벌떡 일어나더니 사월의 부채를 빼앗아 청문을 주었다. 청문은 그것을 받자마자 또 짹짹 소리를 내며 찢고는 둘이 함께 웃어댔다.

사월은 이내 새침해졌다.

“왜 남의 물건을 가지고 이런 장난들이야?”

보옥은 여전히 병글거렸다.

“거 부채함을 통채로 갖다놓고 맘대로 골라가지면 되잖아? 뭐 그리 귀한 물건이라구 야단이람?”

“그러실거면 왜 저 애더러 그걸 함채로 갖다놓고 싫도록 찢게 하시지 못하는거예요?”

“이제라두 네가 좀 가져오렴.”

“그렇지만 전 그런 죄되는 일은 하고싶지 않은걸요. 저 애두 손이 부러져있는건 아니니까 저 애더러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 소리에 청문은 침대에 몸을 기대며 일부러 깔깔 웃어댔다.

“오늘은 고단해서 더 찢지 못하겠어. 래일 또 찢기로 하지.”

“허허, 옛사람들은 ‘천금으로 웃음을 산다’고 했거늘 그까짓 부채 몇자루가 몇푼 갈라구.”

보옥이 웃으며 습인을 부르자 습인은 이내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뒤미처 어린시녀 가혜가 와서 널려진 부채쪼각을 주어버리고 일동은 그늘밑에서 땀을 들이며 한담을 했다.

다음날 점심때가 되어 왕부인을 비롯한 설보채, 림대옥 등 여러 자매들이 대부인의 방에서 한담을 하고있는데 상운아가씨가 왔다는 전갈이 왔다.

이윽고 사상운이 여러 하녀들에게 에워싸여 안으로 들어왔다.

보채와 대옥들은 계단아래까지 내려가 마중을 했다. 여러달만에 만나는 젊은 자매들간의 상봉이라 아주 친밀하고 화애로왔을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다.

상운이 방안에 들어와 어른들에게 차례로 인사를 드리고나자 대부인이 상운의 손을 잡았다.

“더운데 겹옷은 벗으렴.”

“네.”

상운이 얼른 일어나 옷을 벗는데 왕부인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원, 어찌느라구 옷은 그렇게두 많이 껴입었담?”

“누가 이런걸 입고싶어하겠어요? 다 둘째아주머니가 억지로 입혀주어서 할수없이 입은거지요.”

상운이가 웃자 보채도 덩달아 웃으며 말을 했다.